

1

말씀을 내 마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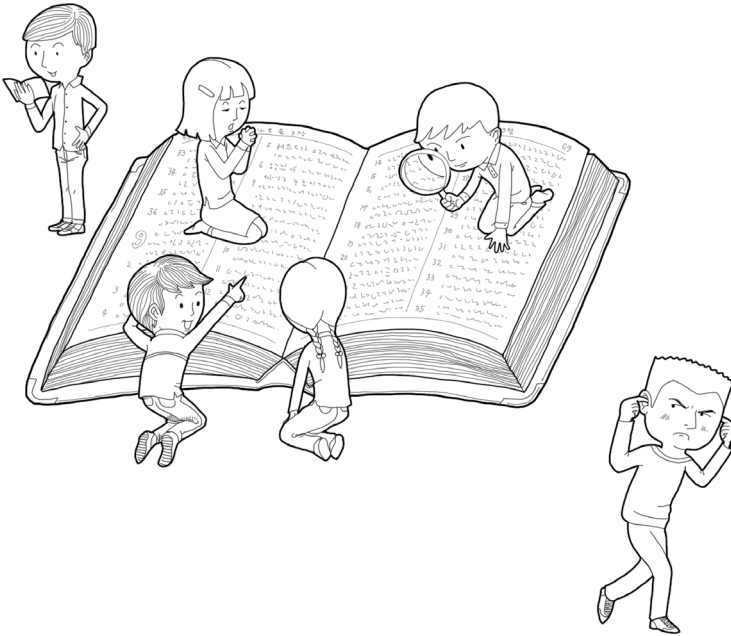
시 19:7~14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134장 (나의 가는 길)

오늘 배울



1. 말씀의 중요성을 압니다.
2. 말씀 묵상과 암송의 유익을 알고 삶 속에서 실천합니다.



내가 주께 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을 내 에 두었나이다
(시 119:11)

태초에 이 계시니라 이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



을 이해하기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이 말씀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유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심히 넓고 끝이 없으며 큰 능력이 있어서 한 개인의 삶 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까지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올바른 교훈을 주실 뿐 아니라 잘못을 책망하고 빠르게 교정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의로 교육하십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여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며 암송했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다른 것보다 최우선하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결코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암송하고 더 나아가 삶을 통해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 1:1~2)

Blessed is the man Who walks not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Nor stands in the path of sinners, Nor sits in the seat of the scornful;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Ps 1:1~2)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렘 17:8)?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채우며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말씀의 명칭	말씀의 특징	말씀의 효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2

우리가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지킬 때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19편 11절에서 13절을 읽고 요약해 봅시다.

3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예: 공과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참빛을 할 때, 암송을 할 때)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일

신 17:19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월

수 1:8

화

시 107:10~11

↑

마 4:4

↓

요 1:1

↓

딤후 3:15

↓

약 1:22



잃어버린 만나

한 가난한 청년이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돈을 모아 배표를 사고 약간의 여비밖에 없던 그에게는 도저히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른 빵조각과 우유로 끼니를 때웠는데, 닳새나 걸리는 항해 기간 동안 그렇게 견뎌다는 것은 식욕이 왕성한 청년에게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더 이상 배가 고파 견디지 못한 그는 무작정 식당으로 들어가 허겁지겁 한 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슴 조이면서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에 시장기를 참을 수 없어서...” 그러자 주인은 그 말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배표에는 이미 식사대금이 치루어져 있는 걸 모르셨습니까?”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 4:4)



질문 있어요~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즉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항상 소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마 7:13~14).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성경의 내용이 진리임을 확증하는 많은 사실들에 대한 무지 때문에 사람들은 멸망의 넓은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연구하고 배우는 가운데 믿음을 가졌습니다(윌리엄 램제이, 링컨, 루 월리스).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성경을 일부러 믿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알고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롬 1:28). 더러운 별레가 씌은 앞을 좋아하듯이, 마음이 부패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더 사랑합니다(요 3:19~20).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구원의 복음이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 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해 해놓은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른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마 18:3).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하지 말라”는 무거운 멍에를 메는 것처럼 부정적인 종교라고 지레짐작해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진실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마음에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요 8:32,36, 마 11:28).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잊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지 않고 의로운 삶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십니다(겔 33:10~11).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는 무관심, 악행 가운데 머무르려는 고집, 영적인 교만, 진리에 대한 오해, 자포자기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이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 7:13~14)